

통일 칼럼

김정은의 핵 집착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이어 하메네이 폭사를 지켜보았다.

공포감을 느끼며 핵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대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미 본토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을 향해 은밀히 출격했고 B-1B 전략폭격기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로 향했다.

중동 해상에 배치된 미국 구축함 예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됐고, 미 항공모함에선 최정예 전투기들이 출격해 이란 곳곳을 타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지휘부 등이 사망했다.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며 전선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북한은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자 주권침해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이 공격받은 다음 날 시멘트 공장을 현지지도하며 태연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남다른 공포감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북핵 제거를 명분 삼아 자신 또한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작전을 침략 행위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향해 간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이 '핵 불허 원칙'을, 그것도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무력으로

로 보여줬다는 점 또한 북한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그냥 압박용으로 인식이 됐다면 이제는 군사작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은 이란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유사한 작전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최소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미 본토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의 담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핵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북한이 미국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해 북미 간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은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정찰 생전에 직결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방공망 이라든지 정찰자산 등 전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놓고 군사력을 대비하는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중동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자수첩

선 넘은 네거티브,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철지난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선 넘은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정책 대결이 아닌 선전선동 중심의 선거를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호남에서 경선이 곧 결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안군수 선거를 살펴보면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1명이 탈락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4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민주당 전북특별

자치도당에서 공직후보자 면접을 거쳤으며 향후 후보 적합도 조사, 활동연설회, 본 경선과 결선을 치르게 된다.

지난 2022년도 정춘성 군수를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성추행 의혹이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소속 유력한 후보에 대해 탈당 및 무소속 출마라는 유언비어까지 난무해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니 이는 확으로 악의적이다.

유권자 수가 적은 진안에서 특정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



우태만
지방부
진안주재 국장

기 위해 대표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경찰조사에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편을 호리케 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

이는 군민의 선택과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민주주의 정치과 올바른 주민 자치의 본 모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군정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와 정책대결에 앞장서야 할 일부 군수 후보들은 정책 대결은 뒤로하고 네거티브에 치중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6.3 지방 선거에서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안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방 선거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책임질 쓸모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대의 약점, 그것도 근거 없는 주장을 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진안의 문제를 해결할 효능감 있는 군수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수주전 총 사업비 규모는 60조원이다. 그러나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한국 방위산업의 운명을 바꿀 역대급 승부처, 독일과의 막판 진검승부가 치열하다.

최근 국산 잠수함에 캐나다 국가가 걸렸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 조선을 찾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의장 행사까지 열어 예우했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은 3천 톤급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에 30년간 유지 보수 정비까지 더해 모두 60조 원 규모다.

을 상반기 선정을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막판 경합 중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 크기 다riel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한 경험에 있다. 신속한 납기를 경쟁력으로,

이뤄냈다. 그래서 한국의 잠수함 운영 시스템과 해군의 능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잠수함 강국 독일은 나토에서 캐나다와의 지속적 안보 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잠수함 사업을 지렛대로 각종 투자를 얻어내려는 캐나다는 "누가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투자 요구에,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우리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생태계 협력을 제안한 상태다.

수주에 성공하면 산업 협력·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나토 국가를 상대로 K-방산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 대항전이 된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팔복예술공장의 복합문화공간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공업단지 내에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곳으로 지금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실내의 전시와 카페 등이 있는 A동, 꿈꾸는 예술터와 다목적 야외광장 등이 있는 B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휴식과 문화 그리고 예술을 경험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한편 전주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8기 결과 보고전을 열었다. '사라지는 순간, 남겨진 영상'이란 제목의 보고회에는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전지홍, 박경진, 김원, 박성은, 양은경, 용하연, 장시제 등이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 사라지고, 나서자 비로소 그 존재를 선했다

게 인식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서 흩어진 순간들, 그리고 그 후에 남겨진 형상과 의미를 응시한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볼 때 기억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추억과 감각이 현재의 시간과 뒤섞이며 낯선 기억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결국 남겨진 형상이란, 지나온 시간을 통과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 7인이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포착해 낸 사라짐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남겨둔 새로운 감각의 확장을 경험했을 것이다.

한편 이곳에서는 '감각 회복'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워크숍 '2026 무해한 예술실험'을 진행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